광주 5개 구청 ‘모기와 전쟁’

GPS 이용 유충지도 만들고 저수지 ‘천적’ 미꾸라지 풀어

주민참여 모기잡기 ‘플래시 몹’ 행사도

광주지역 각 구청들이 법정 전염병인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모기 섬멸에 나섰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기 잡기 ‘플래시 몹’(flash mob), 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모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관리, 유충 분포지도 작성, 미꾸라지를 통한 유충 박멸 등 방역 방법도 다양하다.

각 구청은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일 전남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본격적인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 27일 구청 앞 광장에서 ‘2007년 주민참여형 방역소독 결의대회’를 갖고 이례적으로 모기를 잡기 위한 출범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주민들이 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주민참여형 혁신방역제도’를 도입했다.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인근 모기 서식지를 방역단에게 알려주면 이를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다.

동구청은 또 인터넷·휴대전화 등을 통한 ‘플래시 몹’도 활용하기로 했다. 젊은이들에게 모기의 서식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 뒤,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만나 모기 잡기 행사를 벌인다는 것이다.

북구청은 방역차량 4대를 갖춘 1개 방역반을 오는 10월31일까지 150일 동안 투입할 계획이다. 또 GPS를 이용해 모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관리할 방침이다. 해마다 같은 지역에서 모기 유충이 발생하는 만큼 유충의 분포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유충 분포지도’도 작성해 방역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미꾸라지까지 동원했다. 서구청은 지난 9일부터 ‘유충 조사반’을 편성해 모기 주요 서식처인 운천·풍암·만호·전평 저수지, 종축장, 광주천 등 6곳에 각 200마리의 미꾸라지를 풀었다. 미꾸라지 1마리가 하루에 모기 유충을 500마리까지 잡아먹을 수 있다는 학계 보고를 토대로 한 시도다.

남구청도 동네 사정에 밝은 동장이 방역을 책임지는 ‘동 자율방역’을 시행하고, 5월1일부터 가을 모기가 극성인 10월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잡았다. 방역 여부를 동장과 통장이 실시간으로 ‘소독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점검하고, 민간 위탁 방역 업체의 불성실한 활동이 적발될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플래시 몹(flash mob)=지난 2003년 6월 뉴욕에서 처음 시작된 놀이.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특정한 날짜, 시각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행동을 동시에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번개모임’.

치과엑스포 2007 ‘성황’ 광주·전남·전북 치과의사회는 28~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HODEX(Honam Dental Congress & Exhibition·호남권 치과 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 전시회) 2007’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광주와 전남·전북 치과의사·치위생사 등 의료인 4천500여 명이 참석, 정보 교류의 자리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씨름협 전무 살해…전남체육회 사무처장

“경찰에 자수 하겠다”

본보와 통화서 밝혀

지난 26일 전남도민체전기간 중 전남도 씨름협회 신명석(51) 전무이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달아난 정건철(61)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에 있으며 마음이 정리되는 대로 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29일 오후 본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유가족들에게는 뭐라 할 말이 없다. 평소 가까이 지냈던 신 전무를 생각하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너무 후회스럽다”고 현재의 심경을 피력했다.

정 처장은 또 “사건 전날인 25일 씨름협회 초청 만찬자리에서 나를 모욕한 것에 분노가 일어 다음날 씨름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사과를 받으려 했으나 워낙 덩치들이 커 혹시 하는 마음에 흉기를 점퍼에 넣어서 갔다”며 “전날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백낙천 회장이 들어오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상을 엎어버리자 나도 모르게 흉기를 빼들게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갖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사무처장)까지 왔는데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부임하면서부터 내 위치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며 “잘 지내보려 무던히 애를 썼는데 씨름협회를 자극해 나를 모욕했다”며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진경찰은 “정 처장이 공중전화로 가족 및 가까운 체육계 인사와 통화하고 있어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출국금지했지만 밀항 등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신명석 전무의 장례식은 30일 오전 9시30분 장흥병원에서 전남도 체육회 장(葬)으로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학원생 체벌 학원장 입건

광주 북부경찰은 28일 학원생들을 나무 막대기로 때린 광주 M학원장 윤모(여·48)씨를 상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한문 학원에서 S여중 이모(13)양 등 학원생 8명의 허벅지를 10여 대 씩 때린 혐의다. 윤씨는 맞은 학생들 부모의 고소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교실 문이 잠겨있어 ‘누가 그랬느냐’고 아이들에게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훈계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용봉동 배 카페 불

지난 28일 오전 6시16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노아의 방주’ 배 카페에서 불이나 내부 300㎡과 테이블·소파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4대가 출동, 30분 만에 진화를 마쳤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 풍영정천 · 호수공원 조망의 최고 입지 |
수완신도시 피오레
분양문의 062)367-9000

나우찬 〈7116〉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자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장:(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뇌물 받았다가 돌려줘도 유죄”

쌍나팔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9일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주시 교육청 공무원 박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

○…재판부는 “받은 돈을 직원 회식비 등으로도 사용했고 업무처리에 부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뇌물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사업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천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박씨는 2005년 전주시내 모 초교 신축공사 관리감독관으로 일하면서 모두 1천4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45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고. /연합뉴스

“가드레일 설치 안해 사고…지자체도 책임”

광주지법 판결

광주지법 민사 3단독 김승휘 판사는 29일 도로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H보험회사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전남도는 H보험사에 1천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도로변에 하천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질 염려가 있는 구간에는 반드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는데 일부를 비워 둔 것은 이를 관리하는 전남도의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자의 운전 미숙으로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진 사고인 만큼 사고자와 피고의 과실비율은 9 : 1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의 보상금액을 10%로 제한했다.

H보험사는 지난 2003년 함평군 신광면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로 3명이 사상하자 ‘가드레일을 잘못 관리한 전남도도 사고의 60% 책임이 있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권일기자 cki@

담양서 ‘투견 도박’ 37명 검거

담양 경찰은 29일 시골 비닐하우스에서 투견 도박판을 벌여온 박모(32)씨 등 37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 등은 담양군 용면의 한 야산 비닐하우스 2개 동에 원형 투견장과 전기 시설을 설치, 지난 28일 오후 7시부터 6시간 동안 투견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주한 주모(42)씨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을 받고 광주와 목포·부산·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뒤 경기당 각 10만~3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